# 왜곡하고 싶은 역사(IV) - 룻의 안(?)좋으신 하나님

(룻1:1~5, 19~22)

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5. 말론과 기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왜곡하고 싶은 역사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제를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송의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좋으신 하나님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래 족보상으로 보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모압 땅에 살던 이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 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기에 오늘은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의 이야기로서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사를 왜곡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인간들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죄악 된 모습들,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의 창녀 된 출신성분, 이런 것이 부끄러워서 역사를 왜곡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가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시고 이렇게 가혹하게 섭리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떳떳이 세상에 내어 놓고 전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왜곡하는 역사라고 제목을 붙이고 네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 보셔서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말론과 기룐이라는 건장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하자 가족회의를 하게 되고, 있는 재산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족한 가운데 이민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다니까 우리 처지와 너무 비슷하지요?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갔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빈 털털이로 모압 땅에서 얻었던 며느리를 데리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 사람 수에 끼지 않던 존재입니다.

한 여자가 이국땅에 이민을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을 거지처럼 다 탕진하고, 잃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여자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오미는 절대로 불행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남편 죽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둘 다 죽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재산 다 갖고 가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기에 그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양자 삼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 가족을 데려간 자가 원수예요.
내가 아끼는 재산을 훔쳐간 자가, 약탈한 자가 원수예요.
원수가 따로 있습니까?
남편 빼앗아가, 두 아들 빼앗아가, 재산 빼앗아가, 과부에게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이실 수는 없지만은 나오미라는 한 여자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평생을 걸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계십니까?
잘못이 있어 징벌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 하나 빼앗았으면 충분합니다.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았으면 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빼앗아 갑니다. 한 아들 빼앗아 가는 것 부족하셔서 막내아들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말씀보다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백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을 장작더미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모시다가 성인 전체를 광야에 묻어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인 바리세인들과 대 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죽이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아직도 이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하나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추슬러서 살만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데려 가십니다.
아들은 남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외로움을 안겨 준 것이라면, 아들을 데려 가신 것은 나오미의 목숨을 깎아버린 것이지요.
겨우, 겨우 일어나 마지못해 둘째 아들 결혼 시키고 살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봅니다.
병 걸려 죽은 것도 아니요,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 가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될까요, 왜?
왜 남편과 아들 둘을 놔두고 단란한 가정으로 며느리 얻어서 아들 딸 낳고 손자 보면서 왜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시지 않으시고 다 빼앗아가 버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결단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 증세를 끊으려고 그래요.
뭐에 중독이 걸렸냐?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 중독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식 중독에 걸렸어요.
중독 증세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끊으십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여러분, 제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분만실에서,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신생아를 담은 바구니 유리 이 플라스틱으로 된 바구니가 보입디다. 그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갑니다. 졸졸졸 따라 가면서 봤습니다.
쳐 봤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신생아실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뒤에 저를 부릅니다. 가서 처음으로 결혼 한지 17년 만에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안아봅니다.
샛눈을 이렇게 못생긴 눈으로 뜨더니 안경 쓴 자기 아빠의 얼굴을 보고 와앙~ 하고 우는데 목젖이 처음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 졌을 때 코에다 생기를 후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브가,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생령이 코에 들어간 뒤에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본 것이 누굽니까?
아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서 둘을 만나게 했습니다.
둘 다 제일 처음 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각각 제일 처음 본 것이에요.
그리고 둘 다 족보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요. 하와도 하나님이 자기의 친정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되고 동시에 아담의 시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번성하고 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에게 무궁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 질 것이다."
어떤 상태에서?

제일 먼저 눈 뜨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 뜨고 마음속에 지난밤에 가졌던 생각들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 사업에 대한 걱정, 아내 건강에 대한 걱정, 오만가지 생각을 가득히 담은 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첫 번째 관계를 맺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관계를 맺고 아는 것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가득히, 가득히 마음에 안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걱정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 걱정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사랑하지 말까요? 남편과 아내 사랑하지 말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사랑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제일 처음에 딱 만난 사람인 것처럼 만난 뒤에 남편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중독에 빠진 것이다"는 것이에요.
"나를 제일 처음에 딱 눈 뜨고 만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로 가서 사랑한다면 그건 자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 증세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철저하게 중독 증세에서 빠져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편이 있어요. 아편!
하루에 1mg 씩을 맞는 사람이 중독자입니다.
1mg 씩만 맞으면 아편 증세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든 금단의 증상을 극복 할 수가 있어요.
이 금단의 증상, 아편을 12시간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닭살이 돋고, 살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동공이 풀리고 눈이 멀게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36시간이 지나면 중추신경이 오그라들면서 전신에 통증이 생기고 경련하기 시

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둘 경우에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감옥 벽을 손톱으로 긁는데 손톱이 빠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긁어야 그 통증 때문에 아편을 안 맞아 생기는 통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야 온 몸에 생기는 통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48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졸도를 해 버릴 지경이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졸도를 합니다.
살 한 군데, 한 군데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서 완전히 발광을 하다가 졸도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옥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둡니다.
72시간이 그 아픔이 지속 되다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72시간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내 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아세요?
몸에 대한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 증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집착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관념입니다.
시장을 가던, 공부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항상 아편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장을 가던, 시장을 가던, 살림을 살던, 청소를 하건, 자녀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것처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늘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재발합니다. 재발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상태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랑은 다 중독이다 그 얘기예요. 중독!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애국 애족! 애국 애족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이 서고 나면 어떤 행동을 좋다는 듯이 얘기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냐?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냐?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 제일 먼저 맺은 관계가 절대로 아내 하와가 아니었듯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맺어야 되는 관계가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오미는 온 가족이 단란한 가정이 화목하게 한 뜻을 이루고 이민 갔어요. “우리 잘 살아보자. 여기서는 안 되겠다.” 어디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때 온 가족이 화목하여 한 뜻을 이루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화목은 가정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화목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떠나면 우린 안 됩니다.” 하는 반항아가 있었어야 되요.
온 가족이 날씨 좋다고 주일 날 “야! 오늘은 우리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는데 교회 가지 말고 야외 나가서 B,B,Q 나 하자.” 이럴 때 국민 학교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 아빠 안 돼 교회 가야 돼.” “아! 이 자식 네가 뭘 알아!” “난 교회 갈래.”
이런 반항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화목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합심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으로 갑니다. 잘 살아 보겠다고…
이 중독 증세를 하나님이 끊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잘라내고, 아들을 잘라내고, 또 아들을 잘라내고 그 뒤에 빈자리에 다 빼앗아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맨 주는 것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만에요. 십자가는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빼앗아 가십니다.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마음에서 내 남편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처럼, 내 아들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남편에게 매여 있던 마음이 떨어져, 찢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겪었던 그 중독 증세에서 빠져 나올 때 금단의 증상, 괴로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남편은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상태를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 큰형과 동갑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대 간호학과 4학년 졸업반 시절에 한 달 뒤에 졸업할 때에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밖에다가 연탄가스 먹고 실신한 딸내미를 놔뒀다가 병원에 구급차를 불러서 적십자 병원 냉동실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연탄가스 맡은 사람들은 3,4일 뒤에라도 땅 냄새를 맡고 엎어놓게 하면은 깨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장신대 후배 중에 하숙하는 아이가 연탄가스 맡고 실신 한 것을 끌어내다가 마당에다가 놔둬서 코를 땅에다 쳐 박아 뒀더니 몇 시간 만에 깨어나더라구요.
이 사실을 알고 엄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렸어요.

경기도 현리에 무덤이 있는데, 딸 무덤이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손톱으로 긁는 거예요. “혜초야! 혜초야!” 하면서…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당해 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인지상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먼저 붙잡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첫 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것은 중독이거든, 중독! 사랑이 아니라…
이 중독 증상에서 풀려 나오게 하는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손톱으로 감옥을 긁는 것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자식에게 중독되었다가 빠져나오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자식은 떼어 내어야 됩니다. 왜? 왜?

자식도 살고 엄마도 살려면 떼어 내어야 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에 그 고통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내 아들은 죽지 않았고, 내 앞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 마음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들을 향해 다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죽도록 아파 본 적이 있어요.
말씀 한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신석통이라는 걸 앓았어요, 신석통.
이 신장과 방광 사이에 요로가 있는데 가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마디만한 돌멩이가 생겨 가지고 그 요로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의 표면이 뾰족뾰족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요로를 통과 하는 동안에 사람이 돌아버리도록 아픈 겁니다.
머리를 쥐어뜯어야 되요. 왜?

머리를 쥐어뜯는 고통이 있어야 이 요로에서 아픈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요.
그 때 저희 집사람이 와서, 막 부들부들 떨지요. 너무 아파서 구르니까. “아파요?, 아파요?”
아니 그럼 아프지 안 아파? 보면 몰라!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감기 정도 걸려서 열이 오르잖아요. 그럴 때는 “아! 아파요?” 그럴 때는 엄살도 나와, “으 나 아파! 내가 너무 무리 했나봐! 나 좀 어떻게 해줄래?” 이러는데, 진짜 아프니까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귀찮아요.
“제발 좀 가라. 날 좀 내버려 둬라.” 너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나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대요.
“전화는 무슨 전화!” 아 소리가 막나요. 할 수 없어 견디다, 견디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처럼 훤하신 얼굴에다가 한 가지 다른 것은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그런 얼굴이 저를 떡 내려다보시면서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그 한 마디를 하는데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링거를 초고속으로 맞게 합니다. 링거가 혈관을 타고 들어오자마자 신장으로 곧바로, 곧바로 떨어지면서 이 요로로 통해서 콸콸콸 들어가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꽉 잡고 있던 요로가 풀어 주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사를 놔 줍니다. 갑자기 통증에서 얼음이 깨어져 나가듯이 통증이 딱 끝나는데 제가

확신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이런 마음일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람한테 “비켜, 비켜 의사 선생님 오신다. 의사 선생님, 비켜! 예 선생님. 예! 예!”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압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것 믿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2,3일만 더 땅바닥에 엎어 두었더라면 연탄가스 실신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가 급하게 당황해서 서둘다가 자식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적십자 병원 냉동실에 집어넣고는 평생을 후회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자녀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동안에 자녀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중독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하는 사랑은 다 중독입니다. 십자가를 관통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붙잡고 난 뒤에 아들, 딸, 아내, 남편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다음에는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다. 뜯어내시려고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둘 다 망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관계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나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놓으세요.
마음으로 놓으시고, 붙잡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자식을 붙잡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지…

나오미는 다 잃어버립니다. 원수 같은 자리에 서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분 한 분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과 환희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고통과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쁨과 환희라고 하

는 세상의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는 내 남편, 내 아들 데려간 하나님만 붙잡고 고향에 돌아왔노라." 하신 그 나오미의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다윗 왕가에 왕손의 가문을 세우도록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
제일 처음에 눈 떴을 때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자식이 아니 것처럼 하나님께 몰두 하다가 자식에게 일이 생겼을 때 자식 앞에 나가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내 자식을 앞세워 데려갔습니다.
이제는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여러분 서울대학이 요새 뭔지 아시지요? 서울약대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서울약대라고 그래요. 서울상대가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 서울상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버드대학, 그 위에 천국대학이 있어요.
왜 하버드대학 간다면 혼자서도 보내면서, 천국대학 간다면 왜 그렇게들 두려워하십니까?

다섯 살 난 아들 아이를 하나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7년 동안 자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소리를 듣게 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는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살면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 준 것에 대해 고맙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공부를 못해도 좋고, 훌륭한 직장을 못 가져도 좋고,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을 얻게 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나보다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면, 내 아들이 틀림없이 아버지 품에 안기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 해주시면 먼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확신만 주신다면 나보다 먼저 데려 가실지라도…"
이제 다섯 살 난 아이를 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데려 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간 들 억울할 게 있겠으

며, 내 남편과 아내가 먼저 간 들 억울할 게 있겠으며, 내 자식이 먼저 간 들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분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상태로 자식 사랑한답시고, 남편과 아내 사랑한답시고 살고 있다가 덜렁 죽게 되는 게 큰일이지요.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야 복중에 복이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아들을 내 마음에서 떼어내기 위한 금단의 증상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주께서 담당 하시는 거라 믿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마음에서 떼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라 믿으실 때 온 가족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족들에게도 참된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으시기 원하여, 회복하시기 원하여, 에덴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분명합니다마는 중독된 상태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좋은 하나님일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받아들이는 삼성교회 권속들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